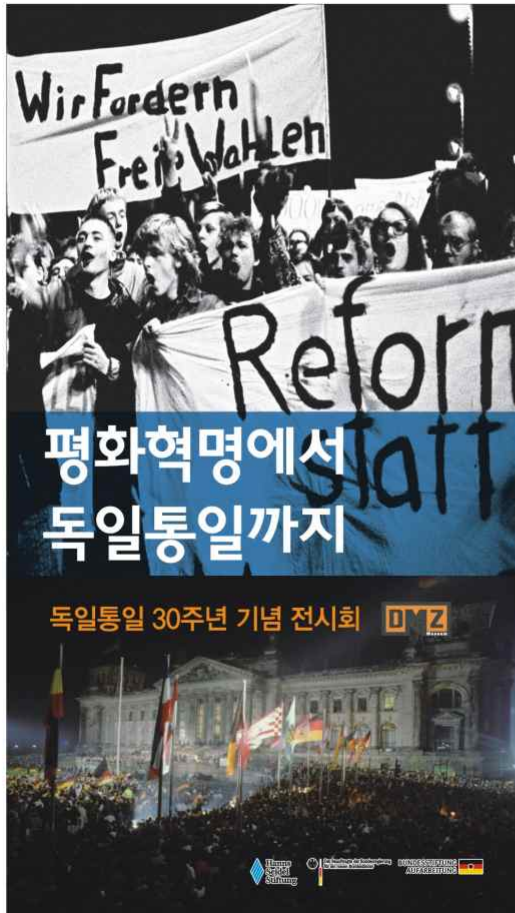


DMZ박물관, 독일 통일 30주년 기념전 개막

2020-09-25 07:01

### 철망배너 900×1600



[헤럴드경제(춘천)=박준환 기자]DMZ박물관(관장 정성훈)이 독일 통일 30주년 기념 ‘평화혁명에서 독일통일까지’ 전시회를 25일 개막, 12월 31일까지 연다. 이번 전시는 (재)한스자이델 한국사무소(대표 베른하르트 켈리거)와 공동 주최로, 한반도와 비슷한 분단을 겪고 통일을 이룬 독일의 역사적 경험을 소개한다.

이번 전시는 동독 사회주의통일당 독재청산재단과 신연방주 특임관의 후원으로 한스자이델재단(한국사무소)이 제공한 동독 정권의 붕괴, 자유총선거, 동서·독의 경제·사회 통합, 통독을 위한 대외협력, 독일통일 선포 등 독일 통일 전 혁명에서부터 독일 통일까지의 핵심적인 사건을 설명하는 출력물 20점으로 구성돼 있다.

DMZ박물관은 이번 전시와 함께 2층 기획전시실에서 ‘공감 Sympathie, 분단과 통일의 역사’라는 주제로 사라진 동서·독 경계지역을 재현 모형과 동서 냉전을 대표하는 베를린 장벽과 동독 철책, 동독 붕괴의 상징인 트라반트 차량 등을 상설 전시 하고 있어 역사적 사건을 실물전시와 함께 살펴 볼 수 있게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FS)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개막행사는 생략한다. 향후 DMZ박물관 개관시(미정)까지는 전시자료들을 박물관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하여 온라인 공개할 예정이다.

DMZ박물관 관계자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냉전체제 아래서 연합국에 의해 강제로 분단되었던 독일이 1990년 10월 3일, 하나의 국가로 통일을 이룬 사례를 통해 한반도 통일을 위한 역사적 교훈을 얻고, 평화와 통일에 대해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pjh@heraldcorp.com

인쇄하기

닫기

---

Copyright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